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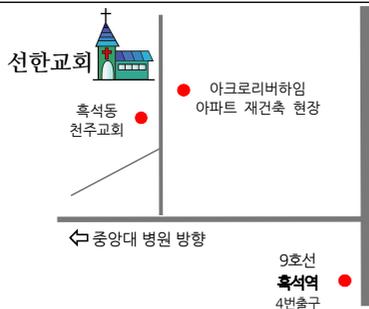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예배및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0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1: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 리 아 회 오후 1: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청 년 부 오후 1:00	드 보 라 회 오후 1:00
	*월삭새벽예배 6:00		에 스 더 회 오후 1: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전임전도사 김진만 전임전도사 권인혁 협력전도사 오효남	파 송 선 교 사 강성규 (러시아) 협 력 선 교 사 양병순 (카자흐스탄) 이금주 (미국)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관 리 장 로 손석규
장 로	유 신 응 (집사장) 김 대 희 박 희 태 조 윤 익 한 배 선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 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 5:16)

Walk By The Spirit

실천사항 선교사의 삶 제자삼기(1인) 성경강론(1장)

삶의 방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개인에 대하여 : 성도에 대하여 : 문제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	--------------------------------------------------	-------------------------------------------------------------------



암송구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4~25)



담임목사 임 춘 배

오전 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원	인도자	
찬양과경배	79장 (통일찬송가 40장)	
교독문	교독문 41번(시편 97편)	
찬양과경배	289장 (통일찬송가 208장)	
예배기도	(1부) 김명선 집사 (2부) 유신웅 장로	
찬양	드림성가대	
말씀봉독	빌립보서 1:27~30	
설교	복음에 합당한 생활 (임춘배 목사)	
헌금드림	십지숙 안현미 오성애	
환영및광고	인도자	
파송의노래	주를 위한 이곳에	
축도	임춘배 목사	
송영	드림성가대	
성도의교제	다함께	

수요 예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

말씀봉독 불의한 연합의 비극적 운명 (사사기 9장)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추수감사절 축제예배** 다음 주일(11월 19일) 오전예배는 추수감사절 축제예배로 드립니다.
-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및 수능일 기도회** 일 정 : 11월 16일(목)까지 / 오전 5시 30분
수험생 : 이우정(이기환, 조덕순), 이하나(안기연)
*16일 목요일은 오전 9시부터 수험생을 위한 수능일기도회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점심식사 제공합니다.)
- 성경 암송 대회** 11월 19일 2부 예배 후 성경암송대회 실시
범위 : 2017년 암송구절 뒷면
시험방법 : 전과 동일(시험지 작성 후 제출)
※ 유초등부, 청소년부, 65세 이상 별도 시상
- 부서별 총회** 11월 넷째 주(26일)에 부서별 총회가 있습니다.
- 정기유형자산실사** 선한교회 유형자산규정에 의거, 2017 “정기유형자산실사”를 실시합니다
주관부서 : 장기기획부(손영삼 집사)
시행부서 : 각 운용부서
주안점 Ⅰ. 자산관련 모든 문서 작성 완료 및 레이블 부착
Ⅱ. 정·부 책임자 선정
기간 : 11월 12일~ 11월20일
- 입당 감사 예배** 12월 3일(주일) 오후 3시 본당에서 입당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 매일 성경 강론** 매일 저녁 8시 성경 강론과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보에 성경 강론을 위한 참고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용과 참여를 바랍니다. (월~금 주5일)
- 정오 기도회** 매일 점심(12시30분)에 교회 건축과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이용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체크하고 계시는 "기도문 읽기표"를 입당예배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준비 안내 및 정리**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은 **혹석셀**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안양셀**입니다.

건축헌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025101-04-158561 예금주: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교회

입금 후 확인은 재정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석 집사 : 010-4333-6242)

2017년 성경강론 범위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사사기 7장	사사기 8장	사사기 9장	사사기 10장	사사기 11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임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찬송 : '구주예수 의지함' 542장(통 340장)

본문: 요한계시록 3장 7~13절

말씀 : 빌라델비아는 주전 140년 아탈루스 2세 때 버가모에서 온 식민지배자들이 세운 작은 도시였습니다. 포도가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주후 17년 일어난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많은 주민이 지방의 촌락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도시에 세워진 빌라델비아교회는 규모도 작고 교인 수도 적고 부자도 없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교회는 다른 지역 교회들과 달리 홀로 1391년까지 오스만튀르크와 싸웠습니다. 무려 1300년 넘게 기독교의 수호지를 자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교회가 칭찬 받은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잘 지어지거나 부자인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바로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빌라델비아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도 얼마든지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적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데 필요한 건 큰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능력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많아도 그 능력이 변질되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버리고 주님의 이름도 배반하게 됩니다.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일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예베소교회와 사데교회, 라오디게아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함으로 무너졌습니다. 두아디라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무너졌습니다. 많은 능력을 가진 교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켜 변질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추구하며 붙잡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능력을 자랑치 말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제목

복음에 합당한 생활 (빌1:27-30)

서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 (1) 한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27)
- (2)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28)
- (3)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29)

본론

2. 교훈

- (1)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자.
- (2) 복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
- (3)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손해를 감수하자.

결론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1부예배기도	김명선 집사	백영미 집사
2부예배기도	유신용 장로	조윤익 장로
헌 금 위 원	심지숙 안현미 오성애	손정환 심인섭 윤국로
안 내	흑석셀	안양셀

찬양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가 286장/통일 찬송가 218장)
통독	사사기 7장
본문 내용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의 수를 줄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원했다는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삼만 이천 명이나 되던 군사가 만 명으로 줄어들고, 다시 삼백 명으로 줄어듭니다. 기드온은 전투 직전에 부하 부라와 함께 적진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의 중다함을 눈으로 확인하기도 하지만, 적군이 나누는 꿈과 그 해몽을 듣고 확신을 갖고 돌아옵니다. 기드온은 삼백 명의 용사를 세 대로 나누어 전장으로 나섭니다. 삼백 용사는 미디안의 진 가까이에서 기드온의 지휘에 따라 나팔을 불며 향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온 적군이 칼로 서로 죽이며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기	
1	<p>기드온의 3백 용사</p> <p>(1) 표징을 구하여 승리를 확신하게 된 기드온은 미디안군과 전투를 벌임</p> <p>(2) 기드온은 하나님의 분부대로 32,000명의 군사 중 300명의 정예 용사만을 뽑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냄</p> <p>(3) 기드온은 밤에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 그들이 나누는 꿈 이야기를 듣고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됨</p> <p>(4) 3백인의 용사를 세 대로 나눈 후 향아리에 감추었던 횃불을 일시에 드러내며 나팔을 불고 고향을 질러 적진을 혼란시키는 작전으로 완승을 거둠</p> <p>(5) 우리는 사람의 수나 무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의존하는 작전을 세워야 함</p> <p>(6) 정예용사의 조건은 믿음과 지혜와 용기이다.</p>
핵심 단어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과 싸움에 있어서 '두려워서 떠다'는 사실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영광받으시기를 거절하셨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셨다. 만일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커녕 스스로 자궁할 자들임에 틀림없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과 기도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208장/통 289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p>2세기 초 소아시아 비두니아의 총독으로 임명된 플리니 2세(Pliny the Second)는 자신의 관할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동향에 대해 로마 황제 트라얀(Trajan)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해롭지 않은 미신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새벽에도 모여 시를 교독하며 찬송을 하고 그리스도를 신처럼 경배합니다. 그들은 도적질이나 강도질을 하지 않고, 간음하거나 약속을 깨지 않으며, 불잡혀도 진리를 부인하지 말자고 서약합니다. 저녁에도 가정에서 모여서 포도주와 맥을 먹고(성찬식)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입니다.” 이렇게 해롭지 않은 미신의 신봉자 정도로 여겨지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황제 숭배에 결사적으로 저항하자 초대 교회 공동체는 엄청난 핍박에 직면했습니다. 그럴수록 성도들은 더욱 굳세게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너희 신을 경배하기 어려운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 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으면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널 죽이겠다”고 하면,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빼앗겠다”고 하면, “내 모든 소유는 천국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했고, “너를 모든 사람과의 접촉에서 분리시켜 버리겠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실 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p> <p>믿음이 도전받을 때 초대 교회 교인들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나요?</p>
말씀 나누기	빌레몬서 1:1~14
묵상포인트	초대 교회는 남자와 여자, 헬라인과 유대인, 자유인과 노예, 주인과 종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한 모델과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 타락해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빌레몬서는 용서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에 빛진 사람이 또 다른 죄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마땅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초대 교회가 가졌던 이러한 급진적인 믿음은 결국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고, 초대 가정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모판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어떤 존재인가요?(10, 12절)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간구하며 요청하는 일은 무엇인가요?(8~14절)
적용하기	내가 빌레몬이라면 바울의 간청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달라져야 할 관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악자를 부리는 자로 대하지 않고 사랑받는 형제로서 존중하게 하소서. 초대교회 성도의 살아 있는 신앙과 삶을 본받아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어도 (찬송가 545장/통일 찬송가 344장)
통독	사사기 11장
본문 내용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치고, 이스라엘 자손은 미스바에 진치고 있을 때,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에게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입다는 자신이 기생의 아들이었기에 쫓겨나며 받았던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기를 수락합니다. 입다는 제일 먼저 암몬 왕에게 침략의 이유를 묻는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입다는 과거 출애굽의 역사를 되짚어 가며, 이스라엘이 부당히 행한 것이 없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탁월한 언변으로 반박합니다. 입다는 자신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자신을 맞아들이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그가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 입다의 딸이 제일 먼저 그를 맞았으나 입다는 서원을 이행했습니다.
생각해보기	
1	<p>사사 입다</p> <p>(1)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입다(므낫세지파)가 사사가 되어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냄</p> <p>(2) 암몬 왕이 요단 동편의 땅이 자신들의 땅임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자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자를 보내 암몬왕을 설득하려 함</p> <p>(3) 입다의 설득에도 암몬왕이 듣지않자 결국 전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군의 승리로 암몬이 항복하게 됨</p> <p>(4) 전쟁중에 입다가 한 경솔한 서원으로 자신을 처음으로 영접한 자신의 무남독녀를 번제물로 바치게 됨</p> <p>(5) 일시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경솔하게 약속해서는 안 되지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p>
핵심 단어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이로다 - (35절) 입다가 승전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의 외딸이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했다. 이 때에 입다는 그의 서원한 것 때문에 걱정하였다. 여기 이른 바 "슬프다"란 감탄사는 히브리어로 "아하"인데 그저 염려를 나타내는 말이다. "슬프다"는 말은 너무 심각한 불행을 표현하므로 여기서 적당한 번역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나로 참담케 하는 자"란 말은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곧, "너는 나를 당황케 만드는구나". 우리 한역의 "나로 참담케 하는 자"란 번역은 역시 너무 심각한 불행에 대한 표현이다. 35절 상반의 히브리어를 보면 입다의 걱정은 그 딸이 죽음이 될 지경의 불행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 것 같다. 입다의 걱정은, 그 딸이 결혼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성전 봉사에 평생 바침이 되어 그(입다)의 기업이 계승되지 못하게 됨을 그 중점으로 하였을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마지막 전투 날짜 : 11월 14일	
찬양	내 평생 소원 이것 뿐 (찬송가 450장/통일 찬송가 376장)
통독	사사기 8장
본문 내용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전투에 자신들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으로 기드온에게 벌미를 삼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높임으로 그들의 노를 풀니다.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는 도중에 거치게 된 숙곳과 브누엘에 식량을 요청하지만 이런 기드온의 요청은 목살당합니다. 기드온은 적장 세바와 살문나가 남은 군사 일만 오천 명과 함께 있는 곳까지 추격하여 두 왕을 사로잡고 온 군대를 파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박대했던 숙곳과 브누엘도 징계합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 다블에서 기드온의 동족을 죽인 이유로 처형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만이 왕이 되심을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리고나서 기드온은 전쟁에서 탈취한 금 귀고리로 에봇 하나를 만들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훗날 기드온과 그 집에 울무가 됩니다. 기드온이 사는 사십 년 동안 이스라엘은 태평을 누립니다. 그는 아내를 많이 두어 칠십 명을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 자손은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기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습니다.
생각해보기	
1	<p>에브라임 지파의 불만(1-3)</p> <p>(1)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과의 전투에 자신들을 처음부터 참여시키지 않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기드온에게 격하게 항의함</p> <p>(2)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지파의 실제적 장자지파이고 여호수아와 같은 지파란 점에서 항상 우월감을 지니고 있었기에 므낫세 지파 소속인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것을 보고 시기한 것</p> <p>(3) 기드온은 자신의 공로보다도 뒤늦게 전투에 참가하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가 더 크다고 치하함으로써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분쟁을 마무리 함</p> <p>(4)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빌2:3)는 성경의 기본적 말씀에 부합하게 사는 성숙한 신앙을 갖자.</p>
2	<p>왕으로 추대받는 기드온(22-32)</p> <p>(1)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자 백성들은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함</p> <p>(2) 기드온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이스라엘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강조함</p> <p>(3) 기드온은 말년에 결정적인 두가지 과오를 범함: ①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에봇 만들 ②여러명의 아내와 첩을 두고 70여명의 아들을 둠</p> <p>(4)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에 앉지 말고 내가 행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p>
핵심 단어	나의 이제 행한 일이..비교되겠느냐 - 이 대답에서 기드온의 성품이 드러난다. 그는 겸손하고 온유하여 명예와 영광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의 분별력은 뛰어난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평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내부의 분열위험을 감지하고 지혜롭게 예방책을 강구하였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통일 찬송가 82장)
통독	사사기 9장
본문 내용	<p>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골육지친인 세겜 사람들의 후원 아래 그 형제 칠십인을 죽입니다. 이때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살아남은 요담은 그리심 산 꼭대기에 서서 우화를 통해 세겜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우화를 통해 요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의 부당성과 기드온의 은혜를 기억지 않는 세겜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세겜과 아비멜렉과의 신실치 못한 야합이 가져올 결과를 예견합니다.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3년 만에 요담의 예언대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말이 세겜과 새로운 동맹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는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그 성읍 장관 스불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비멜렉에게 전갈합니다. 아비멜렉 측의 반격이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세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말은 추방됩니다. 세겜 성을 향한 보복을 마친 뒤, 아비멜렉은 데베스 성을 취하고, 망대로 도망한 그곳 사람들을 진멸하러 갔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 뒷쪽에 맞습니다. 부상당한 아비멜렉은 수치스런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자기 병기 잡은 소년에게 죽음을 요청하고, 이로써 요담의 저주가 응합니다.</p>
생각해보기	
1	<p>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반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드온과 세겜 출신 첩 사이에서 난 아비멜렉이 외가 사람들인 세겜족을 충돌질하여 이복 형제들인 기드온의 70 아들을 죽이고 왕으로 등극함 (2) 간신히 피하여 목숨을 건진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의 가증스러운 범법 행위를 우화로서 책망함(가시나무가 주재 넘게도 왕이 되겠다고 나섬) (3) 요담의 저주대로 아비멜렉과 세겜족 사이에 분열이 생겨 결국 세겜족이 아비멜렉에 의해 멸망당하고 아비멜렉도 여인이 던진 맷돌 뒷쪽에 맞아 처참한 죽음을 당함 (4)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한 불의가 오히려 자신을 파멸시키는 울무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핵심 단어	<p>칠십 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 기드온이 70 아들 중 막내인 요담만 유일하게 피신에 성공하였다(5절). 따라서 실제로 살해된 수는 69명이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살인 미수죄 또한 살인죄나 다름없다. 따라서 70인을 죽였다는 말은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가 465장/통일 찬송가 509장)
통독	사사기 10장
본문 내용	<p>아비멜렉 후에 잇사갈 사람 돌라가 사사가 되어 23년을 다스립니다. 그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되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고,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18년 동안 학대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동안 수없이 반복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그들의 타락을 말씀하시며 이제는 더 이상 구원치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은 범죄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p>
생각해보기	
1	<p>사사 돌라와 야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비멜렉 사후에 돌라와 야일이 연속하여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이 45년동안 태평하게 보내게 됨 (2) 돌라와 야일에 대한 뚜렷한 업적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을 것임 (3)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져야만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4) 각자에게 주어진 형편에서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고 가꾸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해 주신다.
핵심 단어	<p>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1)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를 고백했다(10절). 그것도 죄를 고백하되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했다. (2)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마음의 준비를 했다(15절). (3) 그리고 죄의 고백과 더불어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이 고백한 그 죄로부터 떠났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 그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임을 알 수 있다.</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